

마음 열기 : 자신이 생각하는 ‘육체’의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.

육체의 욕심

관찰 1)

바울은 성령과 육체, 두 가지 본성을 말합니다(갈5:16). 구약성경에는 ‘육체’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?

- 창 6:3b
- 욥 2:28a

관찰 2)

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?

- 요 14:26b
- 요 15:26b

나눔 1)

바울이 말하는 ‘육체’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‘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’를 말합니다.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. 이럴 경우 육신적인 성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. 이처럼 혹시 나에게 남아있는 ‘육체의 욕심’은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.

영과 육의 갈등

관찰 3)

바울은 성령과 육체의 갈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?

- 갈 5:17b
- 롬 7:22-23

관찰 4)

바울은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 “육체의 일”이라고 부릅니다(갈5:19). 육체의 일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?

- 갈 5:19-21

나눔 2)

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(갈5:16,18). 성령충만은 분량의 개념이 아니라 지배의 개념입니다(엡5:18). 주님만 드러날 때 분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. 문제는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,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입니다.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좋은 일, 선한 일에 과도한 욕망을 품었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.